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0년 1월 17일(금) (음력 12월 23일) Пятница 17 января 2020г. № 2(11686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에서 온 방문단이 15일 사할린한인문화센터를 찾았다.
왼쪽으로부터: 배덕호 KIN 공동대표, 김민수 극단 달오름 대표, 박경춘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회장, 김홍지 사할린주 한인협회 고문,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KIN 최상구 사무국장(뒤), 김도희 <이스크라 21> 팀장, 신연자 홈스크한인회 이산가족담당, 구태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변화지원 팀장팀장.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정부, 인사 이동

1월 14일부터 사할린주 주택공공경리부 장관 대행으로 유리 보리소브(1978년생)가 부임했다. 볼고그라드 출신인 그는 사할린에 오기 전에 러시아연방 건설부(모스크바) 전략기획국 부장으로 활동했다. 그가 장관으로 부임한 것은 지역 주택공공경리부가 고품 폐기물처리 개혁을 맡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주 주택공공경리부 장관직은 드미트리 자이체브 장관이 2019년 12월에 사임한 후 공석이였다.

재무부 장관 안나 하르첸코는 사임을 표명, 연해주 정부로 이동해 직책을 맡게 된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안나 하르첸코는 2016년부터 사할린 지역 재무부 장관을 수행해왔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하르첸코 재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간 그녀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사할린주 재무부 장관 직무 대행으로 차관직을 수행하던 올가 로파티나가 임명 되었다. 사할린 출신인 그는 20여 년간 사할린주 재무부에서 일해왔다.

러시아 내각 총 사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내각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 협업의 현 단계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달성된 모든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싶다"고 내각 사퇴를 수용했다.

메드베제프 총리가 이끌어온 현 내각은 푸틴 대통령의 4기 집권 이후인 2018년 5월 구성됐다. 현 내각에선 총리 외에 10명의 부총리와 22명의 장관이 일해왔다. 메드베제프 총리는 약 7년 8개월에 걸친 장수 총리로 기록됐다고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물러나는 메드베제프 총리에게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가안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후임 총리로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국세청장 미하일 미슈스틴(53)을 지명하고 하원에 동의를 요청했다고 크레믈린에서 밝혔다. 경제전문가 출신의 미슈스틴은 지난 2010년부터 국세청장으로 일해왔다.

16일 오전(모스크바 시간)부터 국가두마에서 미슈스틴 총리 임명 동의를 통과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수)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가두마(하원)에서 행한 연례 국정 연설에서 의회와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부분 개헌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총리는 자신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내각) 총사퇴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고 <노브스찌> 러시아통신사가 전했다.

메드베제프 총리는 15일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 뒤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 간 회동에서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밝힌 부분 개헌 제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개정이 이루어지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 권력 균형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내각은 대통령에게 모든 필요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현 내각이

지구촌동포연대,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0> 전달하려고 사할린 방문

이미 몇 년 동안 사할린 어르신들이 한국 민간 단체인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이 해마다 제작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기다리고 있다. 보통 정월에 사할린을 찾은 KIN 대표단은 지방을 다니며 달력을 나누고 어르신들을 만나 구슬작업도 한다. 지난 15일(수) 사할린에 도착한 KIN 대표단(KIN의 배덕호 대표, 최상구 사무국장, 구태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변화지원 팀장, 김도희 <이스크라 21> 팀장, 김민수 극단 달오름 대표)는 한인문화센터를 찾아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무실에서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16일 아침에 포로나이스크로 출발, 3일에 거쳐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마카로브 한인 어르신들에게 달력을 배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8일 오후 이들은 일정을 함께 하게 된 김지연 다큐사진작가(한국)와 <60+클럽>모임에 참가하고 19일-21일에는 시베고르스크, 홈스크, 코르사코브 등을 탐방할 예정이다.

이번에 킨은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0'(이하 '사할린달력') 1,500부를 제작하여 이중 1천2백20부가 1월 13일 사할린 한인협회에 전달되었고 모스크바 지역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100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해상운송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통관을 거쳤지만, 연말과 1월 러시아 연휴기간으로 배송이 늦어졌다."고 최상구 KIN 사무국장이 설명했다.

'사할린 달력' 제작은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이 기일, 명절, 농사, 손없는 날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음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힘든 이유로 제작하기 시작한 지 올해가 일곱 번째이다. 이번 달력은 엄상빈, 문진우, 마동욱, 김용철, 이규철, 김지연 등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 작품으로 채웠다.

"사할린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모금을 통해 제작해 왔으며, 올해는 댓글 응원과 공유, 직접 기부 등으로 9,778명이 같이가치with kakao를 통해 참여했고, 단체에도 시민들과 재외동포, 일본인들이 직접 후원을 해주었다. 제작과 운송 및 현지 방문에 필요한 부족한 재정은 재외동포재단과 NH농협생명의 후원으로 충당되었다. NH농협생명은 5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고 최상구 사무국장이 전했다.

KIN의 사할린 방문단은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한인협회의 설잔치에 쓰일 선물(노래방기계, 색동 동전지갑)도 전달하고 7박8일 일정을 마친 후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본사 기자)

<p>새고려신문</p>	<h2>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h2>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사 편집부)</p>	
---------------------	---	---

새고려신문 2020년 1월 3일호 6면에 게재된 음력 달력에 한국 기념일(4월 19일-4.19혁명 기념일, 5월 18일-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6월 25일-6.25 한국 전쟁일)이 적혀 독자들에게 혼동을 드리게 됨을 사과드립니다

이번 호 7면에는 기념일을 뺀 교정 음력 달력을 실었습니다.

본사 편집부

모국과 러시아 내 한인 동포사회는 서로를 부축하면서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인삼각과 같은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주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 오성환 총영사와의 인터뷰



가단주, 유대인자치주, 추코트카 자치구입니다. 지난해 부임 이후 방문한 지역은 사할린, 하바롭스크, 캄차트카 세 곳입니다.

- 총영사님께서 지난 8월 초에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사할린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들과 동행하셨는데 사할린 동포들의 절박한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 블라디보스톡 영사로 근무하던 2천 년대 중반에 사할린을 2~3차례 방문했었으며, 이번 방문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모든 게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이번 방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동포 간담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페이퍼상으로만 접했던 많은 현안들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사할린 한인 동포에 대한 정책 수립과정이 탁상공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면에 계속)

2019년 7월에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로 오성환(1963년생) 외교관이 부임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오성환 총영사님께 소개 인터뷰를 부탁드렸다.

- 총영사님께서 외교관의 길을 언제 선택하셨어요?

외교관의 길을 선택하기에 앞서, 소련 붕괴에 즈음하여 새롭게 눈앞에 펼쳐진 소련 사회에 대한 궁금증에 따라 소련 전문가가 되겠다는 길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1990년 9월 30일 한소 수교가 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련으로 갈 기회가 생겨 1년 후인 1991년 10월 처음 소련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1~2년 정도만을 생각했으며 외교관보다는 러시아 특과원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과정까지 밟게 되어 6년으로 기간이 연장이 되었으며, 결국 1997년 학위를 받은 후 한국에 돌아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해 지역전문가를 뽑는 외교관 시험 공고를 보고 경재를 거쳐 1997년 11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외교관을 처음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기자나 교수 쪽 방향을 생각했었는데, 운명이 가는 데로 따르다 보니 외교관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외교관이라는 직업 선택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 외교관과 상호보완적인 기자나 교수라는 직업을 간접 경험하게 된 것이 외교관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러시아어는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러시아어를 처음 배운 것은 소련이 붕괴했던 해인 1991년 러시아를 처음 와서부터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러시아 유학 1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어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 사회와 정치외교적 관심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언어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 깊고 폭넓게 이해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본격적으로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한 곳은 파르티사 루뭉바 인민친선대학으로 2학기 동안 러시아어 예비학부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연구소(IMEMO)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 총영사님께서 정치학박사 논문은 어떤 주제로 삼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주제는 '전환기 러시아 대내외정책의 기본 특성'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새로운 러시아가 탄생하는 격변기의 순간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으며, 이러한 맹아상태의 러시아를 제대로 파악할 경우 이후 변화 발전하는 러시아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이 주제를 택하였습니다.

-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로서 중점과 관심사를 둔 분야는? 러시아 극동지역은 총영사님 보시기에 어떤 지역입니까?

총영사로서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 및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이며, 그리고 국익의 관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의 특별한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 극동지역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핵심 부분이자 존재의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북방정책의 대상 지역이나 국가는 있으나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극동 지역이 없을 경우 정책 원래의 취지가 퇴색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블라디보스톡을 허브로 대륙과 해양을 잇고, 캄차트카를 기점으로 북극항로 개발에 협력하자는 평화경제 구상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분명한 점은 평화경제 구상의 중심은 러 극동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러 극동지역은 한반도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하나이자, 한인사회의 해외이주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임에 따라, 지리적 역사적으로도 특별한 곳입니다. 특히 이후 몇 세대를 거쳐 형성된 한인 동포사회가 러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모범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국 모국과 러시아 내 한인 동포사회는 서로를 부축하면서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인삼각과 같은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러시아 내 동포사회가 한민족의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공관이 관할 지역이 많은데 총영사로 활동하신 지 6개월 정도인데 그동안 어느 지역을 방문하실 수 있었는지요?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은 8개 연방주체로 사할린주를 비롯,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캄차트카주, 아무르주, 마

이모저모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할린 가정에 차량 구입을 위하여 최대 100만 루블리까지 지원

사할린주에서 5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차량 구입으로 최대 100만 루블리까지 지원한다. 이 혜택을 다시금 사할린주에서 실시하기 시작한다. 2020년 추가 지원정책으로 지역 예산에서 1억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다자녀 가구들은 가족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지불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혜택을 받기 위해 일련의 조건이 따른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러시아 연방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할린에 거주해야 한다. 이 중 필수 요건은 차량의 개인 소유권이 없고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5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자동차는 필수 품목이 될 것이다. 올해 우리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구입에 일시불 지원금 혜택을 재개했다. 사할린의 100가구가 이 지원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정보를 알려면 거주지에 따른 사회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들은 자동차 구입과 지역 출산기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갈리나 쇼코토프와 가정 정책과 과장이 덧붙였다.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구입 지원금 혜택은 사할린주에서 2017년부터 실시했다. 이때 총 5천만 루블리로 사할린의 56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в которых от пяти детей,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машин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мьям, где воспитываются пятеро и более детей, предоставят до 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покупку машины. Льгота вновь начн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островах. В 2020 году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1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ыплатой могут многодетные независимо от семейного доход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льготы

есть ряд условий. Все члены семьи должны иметь граждан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ожива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исле обязательных требований — отсутствие 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и наличие водительск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 Для семьи, в которой воспитываются пять и более детей, машина становится предметом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возобновили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я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данн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получают около 100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За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им следует обращаться в цент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семейн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лина Шёкотова. — Кроме того, многодетные могут направить на покупку автомобиля и средст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Выплаты семьям с пятью и более детьм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машины действо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7 году. Тогда автомобили смогли приобрести 56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на общую сумму более 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СО.

생일에 복권을 구매하여 억만장자가 된 러시아 여성

'스토로토' 복권에서 10억 루블리에 당첨된 러시아 여성의 이름이 밝혀졌다고 '노위스찌'통신사가 전했다. 모스크바 인근 주민 나제즈다 바르토쉬는 12월 31일 생일 선물로 복권을 받았다. "1월 9일 새해 연휴 직후 국가복권 최고 당첨자가 남편과 딸과 함께 '스토로토' 복권 센터에 상금을 수령하러 왔다."고 '스토로토' 관계자가 밝혔다.

1월 1일에는 모스크바 주민이 복권에 당첨되어 10억 루블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러시아 역사상 이러한 거액의 당첨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월 1일에는 5천 3백만 장 이상의 새해 복권이 발행되었다. 당첨 복권은 모스크바에서 100루블에 판매되었고, 새해 복권이 발행된 이래 99명의 러시아인들이 백만장자가 되었다.

'스토로토'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러시아인들은 빚이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당첨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했고 또한 몇몇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여행을 하고 4위로는 치과 진료, 5위는 자선단체 기부로 드러났다.

Россиянка получила лотерейный билет на день рождения и стала миллиардершей

Объявлено имя россиянки, выигравшей один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в лотерею «Столото». Об этом РИА Новости рассказали в компании.

Жительница Подмосквья Надежда Бартош получила лотерейный билет в подарок на день рождения 31 декабря. «Самый богатый победи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лотерей объявился сразу после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 9 января. (...) Она приехала на оформление выигрыша в лотерейный центр "Столото" вместе с супругом и дочерью», — заявили в «Столото».

1 январ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житель Москвы выиграл в лотерею «Русское лото»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Это первый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случай розыгрыша такой суммы. Праздничный тираж состоялся 1 января,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3 миллионов лотерейных билетов. Выигрышный купон был куплен в Москве за 100 рублей. Миллионерами после новогодней лотереи стали 99 россиян.

По данным «Столото», россияне, ставшие победителями лотереи, чаще всего тратят выигрыш на бытовые нужды, в том числе погашение долгов и кредитов. Также нередко покупают недвижимость и путешествуют. На четвертом мест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лечение зубов, на пятом —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

갈킨 쇼에서 중국어로 노래를 부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일곱살 소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 일곱살 소녀 아리나 타라투히나가 '가장 최고!' 막심 갈킨 쇼에 출연해 중국어로 노래를 불렀다. 출연 후 어린 사할린 소녀는 오랫동안 꿈꿨던 선물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1월 8일 저녁에 방영되어 동양의 새해를 기념하게 되었다.

사할린 소녀는 만화 '진정한 친구'의 유명한 노래인 '강한 우정은 깨지지 않아'를 쇼에서 불렀다. 백미는 아리나가 무대에서 중국어로 노래를 불렀다는 점이다. 노래할 때 무대에는 전통 의상의 타악기 연주자들과 무사들, 용이 등장했다. 마지막에는 폴리나 가가리나가 무대로 나와 역시 중국어로 노래 한 소절을 불렀다.

(6면에 계속)

"위안부 문제는 위헌인데... 헌재, 강제징용은 눈치 보나"

·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재산 청구권 '정부 부작위 소송' 각하

· 다카기 · 경수근 변호사 비판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76)가 지난 5일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을 찾았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500여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다. 다카기 변호사는 1975·1990·2007년 일본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유학 시절 다카기 변호사와의 인연으로 2012년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수근 변호사(65)도 동행했다.

똑같은 문제에 '다른 판결'

변론 없이 서면 공방 진행

결국 제맛춘 것 아닌가

다카기 변호사와 경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사할린 징용 피해자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의 각하 결정이 "국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2011년 결정보다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다카기 변호사는 "2011년 헌재 결정과 똑같은 사건인데 8년 만에 다른 결론이 나왔다"며 "헌재가 한·일 양국 사이가 좋지 않으니 눈치를 보느라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제맛춘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피해자 한문형씨(86) 등 2296명은 2012년 한국 정부가 재산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러시아 사할린의 탄광, 군수시설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의 급여를 일본국 우편예금 등에 강제로 저금시켰다. 인출은 허용되지 않았다. 2000년 일본 우정성이 공식 확인한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미불 우편예금 계좌 수는 약 59만건(2000년 조사 당시 약 1억8000만엔)이다.

피해자들은 1995년 일본 정부가 대만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불 우편예금을 156배로 환산해 지불한 선례를 들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재산청구권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고 위헌 소송을 냈다.

헌재는 한국 정부가 수차례 일본과 실무 협의를 하는 등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7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한·일 형식적 서면 교환은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문 정부 더 강하게 말해야

"헌재는 (한·일 정부가) 형식적으로 몇 번 주고받은 서면을 두고 정부가 작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겁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중재위원회 회부 의무까지 이행해야 해요." 다카기 변호사는 양국 간 협정 해석 분쟁으로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3조 2항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3조 1항은 '협정 해석에 관한 양 계약국 간의 분쟁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 3조 2항은 '1의 규정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위원회에 회부'라고 규정한다. 헌재는 3조 1항에 따른 외교당국 간 협의만으로도 정부가 작위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다카기 변호사는 "중재위에 가면 일본이 100% 지게 돼 있다. 문제인 정부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더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 변호사는 "2016년 1월21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술서 회답 재촉이 마지막이었다. 2016년 1월 이후 한국 정부가 외교



고향마을에 모인 강제징용 피해자 측 경수근 변호사,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의 권경석 회장, 성점모 고문(왼쪽부터)이 5일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 변호사는 각하 과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카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는데, 변론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서면 공방만 몇 번 했어요. 7년 만에 (본안 판단을 회피하는) 결론을 내릴 거면 헌재가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카기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안산 고향마을을 건립할 때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제를 거론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고향마을은 1994년 노태우 정권과 무라야마 정권 간 합의로 건설에 들어갔다. 일본은 아파트 건설비 32억엔을 대고, 한국은 부지를 대는 방식이었다. 입주는 2000년 시작됐다.

일본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의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1965년 체결 당시 피해자들은 한국 국적이 아니었으므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다. 다카기 변호사는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면 일본이 돈을 냈겠나"라며 "일본이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했으니 정부 예산에서 32억엔이라는 큰 돈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사할린 동포가) 영주 귀국했다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급 적용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고 했다.

강제성 없다 주장한 한국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다카기 변호사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낸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 등을 담은 이 책은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다카기 변호사는 이 책을 두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강제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2007년 일본 법원에 제기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송 당시 강제로 봉급이 차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이희팔씨(사할린 귀환자·재일한인회장)는 도망가려다 산에서 보초를 선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결국 탈출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다카기 변호사는 한국인·필리핀인 위안부 피해자 사건, 한국인 피폭 피해자 사건 등을 대리한 '전후 보상' 소송 전문가다. 1990년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21명이 낸 보상청구 소송은 일본 정부에 '전후 보상'을 요구한 최초 소송으로 꼽힌다.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1989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그 눈빛 때문에

우리 집 아이들은 아빠를 닮아 달리기가 느리다. 그러면서도 나와 달리 운동회를 좋아한다.

어릴 적 나는 운동회가 싫었다. 출발선에 서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출발신호가 울리기까지 몇 초가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았다. 남들은 확실히 달려가는데 나만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며 일등을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 되었다. 손등에 도장도 찍지 못하고, 공책도 연필도 타지 못하고, 구경꾼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배 나온 아이가 나왔다.



가장 싫어하는 운동이 달리기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스스로 운동장을 찾아가 달리를 하게 되었다. 국가대표처럼 진지하게 계획을 짜서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다.

몇 년 전, 큰 아이의 첫 운동회 때였다. 아빠들이 별로 없는 터라 학부모 이어달리기 주자를 하라며 등을 떠밀렸다.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보내 내 손을 끌고 가게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심장이 뛰는 자리다. 그나마 술 담배를 몇 년 전에 끊었던 게 도움이 되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어달리기가 정신없이 끝나자 상을 두 개나 받았다. 오이 비누 하나, 그리고 아빠를 향해 달려온 아이의 한 마디

"진짜 빠르다! 나도 크면 아빠처럼 달릴 수 있을까요?"

슈퍼맨을 보듯 반짝이던 눈동자가 지금도 선하다.

둘째 아이까지 초등학교생이 되자 꿈쩍 못하고 해마다 이어달리기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운동회 며칠 전부터 혼자 운동장을 달리고 운동화를 새로 산다.

아빠 덕분에 이겼다고 팔짝팔짝 뛰는 두 아이의 눈동자 때문이다. 너희들도 아빠처럼 빨라질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싶기 때문이다.

이번 운동회에서는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 그래도 또 이겼다. 이제 이 년만 더 달리면 된다.

광주에서 김남중

부산대 학생, 사할린 한인 위주로 취재

1월 12-17일 5박6일 일정으로 한국 부산국립대학교 남학생(김상우, 이준목, 지수근, 최수영) 4명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언어정보학과 학생들인 이들은 교육부를 통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 동아시아지식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되어 취재 대상으로 사할린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사할린이라는 지역이 있고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상태라서 사할린과 사할린 거주 한인들의 역사, 문화, 사할린 한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사할린을 취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사할린 한국 교육원 원장 김주환 원장 및 새고려신문사 배순신 사장과 만나 취재를 진행하고 사할린 국립대학교 (임 엘 비라 교수), 사할린주향도박물관(진 율리아 선임연구) 등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한 한인 2세와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학생들은 사할린의 맛집(러시아 식당, 그루지야 식당 등)에도 관심을 가졌다.

14일 새고려신문사 사무실을 찾아온 부산대 학생팀은 "사할린에 방문하여 한인 분들을 만나니 어떤 글을 읽는 것과는 다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희가 사할린과 사할린 한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нимани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0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ало записи: с 15 января 2020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10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Также всю интересующую Вас информацию вы можете найти на сайте нашего «Центра» : <http://www.sakhalinedu.com>

제 69 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1. 목적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일시 : 2020. 4. 12(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30분 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2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TOPIK II	1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4. 장소 및 시행처 : 사할린한국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20. 1.9 ~ 2020. 1.30

나. 장소 :

교부장소	주소	전화
사할린 한국교육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505696

6. 응시 수수료 : 500루블, 사진 2매 (3*4)

7. 시험결과 발표 : 2020. 5 이후

4-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FLC RE-UNION в Москве



С 29 ноября по 01 декабря 2019 г. в Москве в гостинице «Аэростар» прошел 4-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FLC Re-Union CIS (Россия и СНГ).

Оргкомитет форума с большим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отмечает, что нынешнее мероприятие оказалось весьм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м, ведь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приехали почти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где проживают русскоговорящие корейцы: это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азах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Украина, а также реги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оск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Ростов-на-Дону, Тюмень, Краснодар, Волгоград, Саратов, Омск, Иркутск, Хабаровск, Уссурийск). Впервые в работе форум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аши молод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Германии. Всего форум собрал 60 участников.

Немного об истории самого форума FLC Re-Union CIS. Как видно из названия, изначально FLC Re-Union CIS был задуман с целью организации встречи между выпускниками (участниками) Глоба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Future Leaders Conference (отсюда и аббревиатура – FLC), проходящего ежегодно осенью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знакомившись в рамках Глобального форума, участники FLC из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хотели продолжить общение и сохранить коммуникацию.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январе 2016 года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форум в формате FLC Re-Union.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однако, цели FLC Re-Union CIS стали шире: помимо организации нетворкинга для выпуск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FLC, важной миссией форума стали поиск и привлечен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молодых лидеров, готовых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екты на благо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в регионе их прожива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охра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и идентичности. Теперь любо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или девушка, разделяющие такие интересы,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будущих конференциях FLC и форумах FLC Re-Union CIS и продолжить общение в сообществе FLC.

В первый день форума (29.11.2019г.), тематически названный «Диаспора сегодня»,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посвятили время тому, чтобы рассказать и обсудить, какие успешные практики наработаны ими при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в своих регионах. Все эти проекты связаны с жизнью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тех регионов, в которых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Лидер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Миринэ» из Волгограда Игорь Ким рассказал, как им, молодым ребятам, удалось, имея на старте в активе лишь огромное желание и неуемную энергию,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сле запуска проекта, наконец, в 2019 году

построить в своем городе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Игорь поделился важными деталями о том, как активистам молодежного центра Волгограда удалось сохранить сплоченность коллектива, завоевать отличную репутацию в отношениях с городскими и обла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получить доверие со стороны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и спонсоров.

Игорь Ли из Ташкента является успеш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м, но круг его жизн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бизнесом. Игорь – член Клуб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реин» и наставник Молодежного центра «Shinsedae». На примере эт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горь поделился опытом того, как бизнес сообщество мож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Игорю удалось найт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и, сплотившись, они смогли найти те сферы, где интересы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молодежи оказались встречными. И это стало хорошей гарантией долгосрочности выстро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Так, Клуб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реин» совместно с Молодежным центром «Shinsedae»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ят конкурс для молодежи на лучшую бизнес-идею.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ыступают здесь в роли жюри,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 разбор проектов,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на конкурс, а также в качестве менторов успеш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бизнесмены могут встретиться с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ью, подхватить интересные бизнес-иде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для молодых ребят – это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идеи действующ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и в процессе защиты конкурсных проектов приобрести важные навыки и опыт, которые, несомненно, пригодятся им в будущем.

Интересным опытом поделилась с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Ирина Лим из Тюмени. В этом сибирском городе проживает небольшая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о очень сплоч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Осенью 2018 года пост Почет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юмени занял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Игорь Самкаев. И мы можем отметить, что вместе: Почетный консул и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сделали очень многое и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экономико-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и для сплочения и активиз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Тюмени. С огромной радостью наблюдаем, как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Тюмени стала важнейшим звеном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организации между Тюменью и Кореей и обрела жизнь в новом измерении. И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драйверами этого являются выпускники FLC – Алексей Тен, Наталья и Ирина Ким.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ый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

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Требования к Японии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звучат уже 28 лет

Несмотря на зимний холод, 8 января перед бывшим зданием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еуле собрались несколько сот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активисты, студенты и одна из немногих оставшихся в живых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период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Ли Юн Су. Они потребовали от Токио искренних извинений и юридической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злодеяния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Массовые акции проходят каждую среду вот уже 28 лет. Самая первая состоялась в 1992 году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в Сеул тогдашн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Киити Миядзавы. Митинги отменялись лишь в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случаях - после землетрясения в Кобе в 1995 году и мощного землетрясения и цунами в марте 2011, когда проводились церемонии поминовения жертв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За долгие годы акции стали символом мирн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ротив воен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Японии. По оценкам историков,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о 200 тысяч женщин из стран Азии, в том числе из Кореи, были насильно отправлены в полевые бордели японских войск. До наших дней дожили лишь 20 кореянок - жертв воен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Японии.

РК на четвёртом месте по доле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игр

7 янва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и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представили «Белую книгу по развитию игровой индустрии РК». В ней говорится, что в 2018 году продаж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профильной отрасли выросли на 8,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14 трлн 290 млрд 200 млн вон или 12 млрд 265 млн долларов. В секторе мобильных игр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на 7,2% до 5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46,6% общей суммы продаж. В сфере игр для персональных компьютеров отметка выросла на 10,6% до 4,3 млрд долларов. Показатель консольных игр вырос на 41,5%, составив 470,8 млн долларов. Мировой игровой рынок вырос на 7,1%, составив 178 миллиардов 368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доле на этом рынке РК заняла четвёртое место - 6,3%. В сфере игр для настольных компьютеров РК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сле Китая - 13,9%. В секторе мобильных игр отечественные разработчики на четвёртой позиции после КНР, Японии и США - 9,5%. Объём экспорта вырос на 8,2%, составив 6 млрд 411 млн долларов.

В РК расширена пенсионная поддержка людей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да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ателей повыш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енсии в размере 300 тыс. вон или 280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тся с января до 3 млн 25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связано с одобрением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поправок в закон о пенсиях,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категория получателей данной повышенной суммы выплат расширяется от 20% до 40% пенсионеров с минимальным доход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1 млн 625 тыс. пенсионеров размер выплат будет увеличен с 250 до 300 тыс. вон. Кроме того, увеличено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ателей среди инвалидов. Согласно принятым поправкам, до 2024 года сохраняются пенсионные льготы для 360 тыс. граждан, работающих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Знаков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РК посетили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глав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РК посетили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ов.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охр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3 млн 380 тыс. человек. Речь идёт о королевских дворцах Кёнбоккун, Чхандоккун, Чхангёнуин и Токсугун, святилище Чонмё, где хранятся поминальные дощечки членов королевской семьи, и королевских гробницах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Показатель на 17,8% больше, чем в 2018 году. Предыдущий рекорд был зафиксирован в 2016 году - 13 млн 44 тыс. человек. Среди королевских дворцов самым посещаемым стал дворец Кёнбоккун - 5 млн 343 тыс.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Токсугун - 2,4 млн и Чхандоккун - 1,7 млн человек.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сетивших вышеуказанные объекты, составило 2 млн 572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на 21,2%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китайских туристов вырос на 100,4%, гостей из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на 18,8%.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сменился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14 январ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в Сеуле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овым, 46-м по счёту глав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 69-летний Чон Се Гюн, который сменил на этом посту Ли Нак Ена.

В своей речи Чон Се Гюн пообещал не жалеть сил, чтобы укрепить позиции Кореи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дово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державы, а также увеличить темп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Премьер также заверил, чт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братит на сплочение народа и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развития и счастливой жизни каждого жителя страны.

Напомним, что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двинул** Чон Се Гюна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около месяца назад. После слушаний в парламенте, как и ожидалось, депутаты одобрили кандидатуру Чона, которого очень хорошо знают. Нынешний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ыл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известных и влиятельных политиков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шесть раз подряд избирался депутатом парламента. Он также успел побывать спикером парламента, а ранее еще и министром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Но Му Хена, где тогда также работал и нынешний лидер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К достоинствам Чона относят его умение ладить с самыми разными людьми, а также умение мягко,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уверенно управлять подчиненными.



Предшественник Чона Ли Нак Ен, который установил рекорд для 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по длительности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2 года 8 месяцев), вернулся к работе в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он будет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в парламент на всеобщих выборах,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Москве наград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ий лозунг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К и РФ



Во вторник в посольстве РК в России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ий лозунг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приуроченного к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Из 1.114 заявок - 510 с российской и 634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 был выбран лозунг, сочинённый Владиславом Васюхиным, «Дружить, доверять, действовать». Он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о всех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ах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й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Победителю вручён приз в виде авиабилета в РК и оплачено проживание в гостинице в Сеуле в течение трёх суток. Три финалиста получили подарочные денеж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В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еих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посол РК в России Ли Сок Пэ и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ихаил Швыдкой. В своей речи Ли Сок Пэ сказал, что конкурс подтвердил интерес народов к двухсторонним отношениям.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зволят создать фундамент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KBS World)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овёл новогоднюю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14 янва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овёл в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и новогоднюю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в ходе которой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Первый вопрос касался доверия к генеральному прокурору Юн Сок Ёлю. Мун Чжэ Ин ответил, что если генпрокурор будет активно работать над реформированием прокуратуры, то это позволит достичь прогресса не только в изменении практики следствия, но и культуры работы прокуратуры. Он отметил, что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прокуратуры необходимо, поскольку, по мнению народа, она обладает чрезмерны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Коснувшись назначения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в прокуратуре, президент указал, что право министров 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выбор кадров следует уважать, как и следственные полномочия прокуратуры.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амой важной задачей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ов является достижение единства. Этот принцип был учтён при выдвижении Чон Сэ Гюна на пост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Касательно рынка недвижимости, он отметил, что ситуация в целом стабилизируется.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е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не радужное положение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 в диалоге между КНДР и США, не следует смотреть на ситуацию пессимистично. Он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 то, что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просил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еред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лидеру Ким Чен Ёну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днём рождения, а затем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аправил главе КНДР личное послание. По его словам, Север после этого ясно дал понять, что двери к диалогу остаются открытыми.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что и сейчас прилагаются усилия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через диалог.

(KBS World)

В этом году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на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бойдётся корейцам дешевле

В этом году закупка продуктов для праздничного стола на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бойдётся корейцам в среднем на 5,4% дешевл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читывая стоимость 36 наименований продуктов,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в данный праздник,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87.718 вон или 162 доллара. Из расчёта закупок в больших универсамах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90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15% больше, чем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ах.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одила специальная группа экспертов от мэрии Сеула. Причиной нынешнего снижения является хороший урожай и ме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стабилизации цен на продукты в праздничный период.

(KBS World)



4-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FLC RE-UNION в Москв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улучшают нашу жизнь ежедневно.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нашу сегодняшнюю жизнь без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И потому проект @hansanglab,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Анастасией Мезиновой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ызвал интерес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По сути, мы имеем дело с новым медиа, развитие которого, очевидно, внесет вклад в объединение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будет полезно всем тем, для кого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идентичность представляют интерес.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хотим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всех читателей на этот медиа-проект. Найдите его в удобных для Вас соцсетях, зайдите и почитайте посты. Надеемся, что Вам понравится.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НТОК рассказал ее Президент Дмитрий Чо, доцент НИУ МЭИ. Основанное в 1991 году НТО АНТОК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тарейших объединений сначала советских, а ныне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тавление этого общества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ставило целью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АНТОК в регионы прожив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с тем, чтобы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знало о программах и мероприятиях этой уважаемой организации, чь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райне важна для развития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а также для развития ученых-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вовлеченных в мероприятия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звечный вопрос на любых встречах, где обсуждается будущее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как привлечь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жизнь молодежь? Убедительный и, смею Вас заверить, исчерпывающий ответ на этот вопрос прозвучал в выступлении лидера Саратов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Тонмакколь» Андрея-Сергея Кима. Имея внушительную компетенцию в IT-индустрии, он сумел системно и логично структурировать свой доклад, пошагово разъясняя, как с нуля создать сообщество, какие критерии в работе являются ключевым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успеха.

Лучший повод для доверия к словам докладчика – это результаты текущ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КЦ «Тонмакколь», а они впечатляющие! З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активистам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удалось запустить школу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школу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школу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а также корейский киноклуб. Активисты Саратова запланировали и уже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ют план проведения сразу двух фестивалей в год: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Корейская весна». От имени FLC желаем ребятам успехов в реализации дальнейших планов!

Отдельно следует рассказать о лекциях Дмитрия Шина (www.agigang.ru). Дмитрий известен свои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в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коре сарам. В 2011 году вышел его большой историографический труд: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Последующие восемь лет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этой книги Дмитрий провел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результатом которых стал выход в 2019 году новой книги, посвященной корейцам - Героя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FLC Re-Union стали счастливыми слушателями уникаль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через которое они из первых уст узнали о том, как буквально по крупицам автору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ценнейш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о том, каких трудовых достижений смогли добиться люди поколения наших дедов и прадедов. Эти трудовые подвиги, совершенные в такое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отягощенное войной, депортацией, тяжелым состоянием страны в послевоенное время, вселяют уверенность в нас, живущих в гораздо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в том, что и в нынешн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можно достичь успеха, переняв те ключевые качества наших предков-героев: трудолюбие, упорство в труде, настойчивость в достижении целей.

Не менее интересной стала лекция Дмитрия Шина во второй день форума на тему изучения и составления своей родословной. На примере собственной семьи Дмитрий показал, как 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историю свое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 это выступление вызвало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Ведь найти свои корни – это то, что, безусловно, необходимо каждому для собственн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веренно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живя в нынешнем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м мире.

Опытom жизни в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м обществе поделилась с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следующий лектор - Мария Меньшова, выпускница престижнейших ВУЗов мира – Массачусетск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 Школы экономики Колумб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У Марии сложный уникальный опыт жизни во Франции, США, где ей, прожившей в Москве до 17 лет, нужно было привыкнуть к жизни в обществе людей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ультур.

Как научиться воспринимать толерантно чужую культуру, при этом сохраняя привычные ценности? Что лучше: полностью ассимилироваться, или же сохранять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в условиях постоянного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с чужой культурой? К размышлению на такие вопросы подвигало слушателей выступление Марии.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вопросы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встают перед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любой нации.

Всеобщий интерес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вызвал совместный доклад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в Коре: возможности и вызовы дл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ем в области социологии Евгенией Ан (Франкфурт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И.В. Гете, Герма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м в сфере ГЧП Ириной Цай (г. Кендж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звестно, чт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корейцев из всех стран СНГ переехало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поисках работы.

Столкновение с новой культурой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 непростое испытание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Особенно трудно, очевидно, детям и подросткам, ввиду их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зрослых, которым самим нелегк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новом месте проживания.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а тем более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эту тему явно не хватает. Оттого, доклад Евгении и Ирины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был воспринят как уникальный материал. Какие вопросы в жизни коре сарам в Коре –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 Какие проекты и усилия могут помочь в улучшении их жизни? Отрадно, что доклад содержал очень практиче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решения текущих проблем жизни коре сарам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Русскоговорящие корейцы имеют опыт адаптации к жизни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проживания. Ведь 155 лет назад корейцы в поисках лучшей жизни впервые пересели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покинув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 роли православия в процессе адаптации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поведал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о. Александр Сон, священник Заиконоспасского ставропигиального мужского монастыря. Неизвестная для широкого круга лиц эта страница истории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чрезвычайно важной для изучения именно сейчас. Ведь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показывает, как добровольное принятие корейцами православной веры в принявшей их стране помогло им в обустройстве их жизни, становлении их в качестве верно-подданных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 если православие сыграло такую положительную для корейцев роль тогда, в то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то и сейчас православие, как религия, может и должно помочь русскоговорящим корейцам в духовном укреплении и повышен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ровня. Очевидно, что для этого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Более тесны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роизошел в рамках круглых столов, на которых участники обсуждали как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бизнес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ообщества могут помочь будущему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состоялась также дискуссия по теме: как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и,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и СМИ коре сарам могут помочь русскоговорящим корейцам сохрани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форума участники подвели итоги дискуссий, состоявшихся в течение двух предшествующих дней, и составили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Надеем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ий год многое из задуманного удас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и на следующем форуме FLC Re-Union CIS в 2020 году можно будет подвести итоги сделанного. Если Вам, читатель, интересны темы, которые мы обсуждаем, то узнать о последних новостях сообщества Вы можете на нашем аккаунте FLC RE-Union CIS в Facebook.

Александр Пак
(по материалам сайта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газеты»)

이모저모

(2면의 계속)

막심 갈킨은 전례대로 아리나에게 메달과 사탕 배낭, 꽃을 증정하고 성탄 트리 아래 놓여있는 선물을 가지도록 했다. 아리나의 말처럼 늘 꿈꿔왔던 기로스 쿨터 (2륜 스쿠터)가 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커다란 선물상자였다.

이 프로그램은 12월 초에 녹화되어 1월 초에 방영되었다. 방송의 주제는 '동양의 새해맞이'였는데 아리나가 몇 개 국어의 언어로 말하고 노래를 부른 씬 씬는 제때 적중하게 되었다.

Семилетняя девочка-полигло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пела в шоу Галкина по-китайски

Семилетняя Арина Таратухин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ступила в шоу Максима Галкина «Лучше всех!» с песней на китайском языке. В конце выступления юная сахалинка получила подарок, о котором давно мечтала. Передача вышла в эфир вечером 8 января и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восточному Новому году.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девочка исполнила на шоу известную песню «Дружба крепкая не сломается» из мультфильма «Настоящий друг». Изюминка в том, что прозвучала она на китайском языке, а на подтанцовке у сахалинки были дракон, воин и барабанщики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В конце на сцену вышла Полина Гагарина и тоже по-китайски пропела один куплет.

Максим Галкин традиционно вручил девочке медаль, рюкзачок со сладостями, цветы и предложил забрать под елкой новогодний подарок — огромную ко-

робку, в которой, по словам Арины, наверняка лежит гироскутер, о котором она мечтала.

Сами съемки программы прошли еще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но показали ее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Тематикой выпуска стал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и способность Арины пять и говорить на нескольких языках пришлась как раз кстати.

Сахалин 주민들 2020 년의 상징을 자동차로 디자인

Сахалин의 운전자들이 2020년 동양의 새해 상징인 쥐를 자동차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꿈을 성취했다. 1월 초 코르사코브 구역 <푸쉬스틱> 간이 비행장에서 이런 주제로 플래시몹이 열렸다.

이 행사의 주최자로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안드레이 프롤로브에 따르면 행사에 80여 대의 차량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2020이란 거대한 숫자를 자동차들이 이합집산하여 모양을 만들어 내는데 첫 번째는 쥐 모양의 '0'이 나타나고 두 번째 '0'은 성탄 장식 모양으로 드러났다. 행사는 16시에 시작되어 3시간 반 만에 끝났다. 저녁이 되자 자동차로 만들어낸 모양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촬영 영상을 소셜네트워크로 전송했다.

"쥐를 묘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흘러갔다. 차량들이 2번이나 채배치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쥐는 수염이 없을 수 없어 차량들로 묘사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대신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풀어냈다. LED 스트립으로 밝혀 표현함으로 성공했다. 쥐의 주둥이 주변에 빛줄기가 퍼졌다."고 프롤로브가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푸쉬스틱>로 많은 운전자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다. 이들에게 추위 할아버-

지와 눈꽃소녀가 반가이 맞으며 다양한 경연도 진행하여 참석자들에게는 지루할 시간조차 없었다.

행사 종료는 불꽃놀이와 단체 춤으로 장식되었다.

Сахалинцы выстроили из автомобилей символ 2020 год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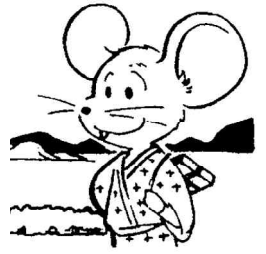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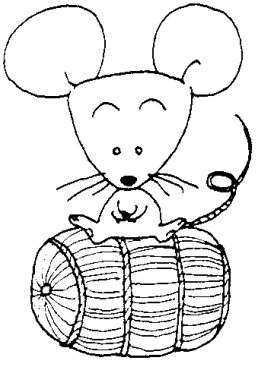
Сахалинские водители исполнили свою мечту — построили из автомобилей изображение 2020 года, где присутствует его восточный символ — мышь. Такой тематический флешмоб прошел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Как рассказал организатор мероприятия южносахалинец Андрей Фролов, в нем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около 80 машин. Рисунок получился оригинальный — гигантская цифра 2020, первый нолик стилизован под грызуна, второй — под елочную игрушку. Само построение началось с 16 часов, а закончилось только через 3,5 часа. Когда наступили сумерки, картину сняли с квадрокоптера. Снимки разошлись по соцсетям.

— Больше всего времени ушло на выстраивание мыши, — пояснил Фролов. — Автомобили переставляли два раза. Мышь, как известно, не может быть без усов, а изобразить их машинами не выходило. Этот вопрос решили по-другому — выложили усы при помощи светодиодных лент. Вокруг носика сделали световой круг из фонариков.

В отличие от прошлых годов в этот раз было больше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взявших на «Пушистый» свои семьи. Их развлекали Дед Мороз со Снегурочкой, проводили различные конкурсы. Одним словом, скучно не было никому. Окончание акции отметили большим хороводом и бенгальскими огнями.

(Сахалин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경 자 년

- 음력설
1.25
한식
4.5
단오
6.25
초복
7.16
중복
7.26
말복
8.15
추석
10.1
성탄절
12.25



2 0 2 0 년

	1월 음력 12-1월					2월 음력 1-2월					3월 음력 2-3월					
월		6	13	20	27		3	10	17	24		2	9	16	23	30
화		7	14	21	28		4	11	18	25		3	10	17	24	31
수	1	8	15	22	29		5	12	19	26		4	11	18	25	
목	2	9	16	23	30		6	13	20	27		5	12	19	26	
금	3	10	17	24	31		7	14	21	28		6	13	20	27	
토	4	11	18	25		1	8	15	22	29		7	14	21	28	
일	5	12	19	26		2	9	16	23		1	8	15	22	29	
	4월 음력 3-4월					5월 음력 4-4월(윤달)					6월 음력 윤 4-5월					
월		6	13	20	27		4	11	18	25		1	8	15	22	29
화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수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17	24	
목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금	3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토	4	11	18	25		2	9	16	23	30		6	13	20	27	
일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7월 음력 5-6월					8월 음력 6-7월					9월 음력 7-8월					
월		6	13	20	27		3	10	17	24	31		7	14	21	28
화		7	14	21	28		4	11	18	25		1	8	15	22	29
수	1	8	15	22	29		5	12	19	26		2	9	16	23	30
목	2	9	16	23	30		6	13	20	27		3	10	17	24	
금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토	4	11	18	25		1	8	15	22	29		5	12	19	26	
일	5	12	19	26		2	9	16	23	30		6	13	20	27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9-10월					12월 음력 10-11월					
월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화		6	13	20	27		3	10	17	24		1	8	15	22	29
수		7	14	21	28		4	11	18	25		2	9	16	23	30
목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금	2	9	16	23	30		6	13	20	27		4	11	18	25	
토	3	10	17	24	31		7	14	21	28		5	12	19	26	
일	4	11	18	25		1	8	15	22	29		6	13	20	27	

절기

소대입우 경춘청곡입소망하소대입처백추한상입소대동
한한춘수칩분명우하만중지서서추서로분로강동설설지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6 20 4 19 5 20 4 19 5 20 5 21 7 22 7 23 7 22 8 23 7 22 7 21

(양력)



(2면의 계속)

- 총영사님 생각에 한국이 재외동포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첫째, 한글학교, 장학제도 및 연수/초청 사업 등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 정책, 둘째, 한상대회, 한상기업청년인턴십 등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 셋째, 러.CIS 무국적고려인 법률지원, 해외 한인입양인 등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강화된 지원 정책, 넷째, 한인의 날, 한인회장대회, 한상대회, 한인차세대대회 등 재외동포 대상 주요 초청행사 개최 등이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대한 한국의 법령으로는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제2조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자 및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서 거주 중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 따라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사

모국과 러시아 내 한인 동포사회는 서로를 부족하면서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인삼각과 같은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주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 오성환 총영사와의 인터뷰

업을 시행 중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의 특례수급권자로 지정이 가능하며, 소득 조사를 통해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 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 편의를 위해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 지침'(2019.4.16)에 따라 사할린 동포에 대해 귀화 면접심사 및 종합평가를 면제하고 수수료도 일부 면제하고 있습니다.

- 2020년은 한려 수교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올해 한-러 수교 30 주년을 맞아 전례 없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에서 준비 중인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는 '가장 가까운 유럽 - 물길 철길 하늘길 오딧

세이'를 타이틀로 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대규모 방문단이 금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운항을 개시할 크루즈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우리 선조들의 역사적 발자취인 발해 및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하고, 블라디보스톡 중앙혁명광장에서 대규모 야외문화행사를 진행한 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하바롭스크의 독립운동유적지 등을 방문한 후 비행기편으로 인천으로 귀환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에서의 30주년 수교행사는 총영사관 산하 사할린출장소가 중심이 되어 한국 클래식 음악 연주단 공연, K-Pop 공연, 한려 수교를 주제로 한 한국어 발표대회, 한국 소개 SNS 공모대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외교관으로 여러 지역에

파견되었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첫번째 해외근무는 2000년부터 4년간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그 이후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 근무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금년 6월부터 다시 시작되었으며, 다른 지역의 해외 근무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2년 반, 독일 본에서 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결국 해외근무의 대부분은 유럽 지역이거나 유럽과 같은 아시아, 또는 아시아와 같은 유럽에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특별히 나쁜 기억은 생각나지 않고, 좋은 추억만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나름 장점과 매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러시아에서 시작해서 이번에 러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게 운명처럼 느껴지고,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 편한 느낌입니다.

- 가족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식구는 아내와 두 딸 총 4인 가족이며, 모두 함께 살고 있습니다.

- 사할린 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러시아 극동에 다시 돌아와 모든 분들을 다시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과 가족, 친지분들 건강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기력 빨리 회복하시고,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행복하시고, 새해 들어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백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